

장애학생 원격교육 및 교육지원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및 요구 분석

Analysis of Parents' Perceptions and Needs for Distance Education and Educational Support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구정아, 손지영*

대전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Jeong-Ah Ku, Ji-Young Son*

Department of Secondary Special Education, Daejeon University, Daejeon 34520, Korea

[요약]

본 연구는 장애학생에게 실시된 원격수업에 대한 장애학생 학부모의 인식을 파악하고, 교육지원에 대한 요구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령기 장애 자녀가 있는 전국의 학부모 총 2,3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은 크게 교육격차 방지를 위한 학습지원, 행동 및 심리적 어려움을 위한 지원, 교육복지 보장을 위한 돌봄지원의 영역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취합된 자료는 기술통계를 통해 분석되었으며, 중복응답을 한 문항의 경우에는 다중응답 빈도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원격수업 시 장애학생의 교육격차 방지를 위해 지원해야 할 학습지원의 중요도로 학교 내 대면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한 학습지원과 관련해서는 장애특성에 맞는 원격학습 방법 및 전략에 대한 상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학생 원격수업을 위한 학습지원의 방안으로 예비특수교사를 통한 개별학습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관련해서는 필요할 때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기의 확보를 요구하였다. 이 밖에도 장애학생이 행동 및 심리적 어려움을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지원이 요구되었으며, 장애특성에 적합한 돌봄 프로그램 개발 및 전담 인력 추가 배치 등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장애학생이 원격수업으로 인한 겪게 되는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및 구체적인 교육지원 방안에 관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parents' perceptions of the distance learning provided to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to explore the demands for educational support. A survey was conducted on a total of 2,392 parents of school-age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survey questions were largely divided into the learning support to prevent educational gap, support for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difficulties, and care support for educational welfare.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face-to-face education in schools was the most important to prevent the educational gap between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counseling on distance learning methods and strategie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abled in connection with the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was the most necessary. As a learning support method for distance learning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ere was

<http://dx.doi.org/10.14702/JPEE.2022.447>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31 July 2022; Revised 17 August 2022

Accepted 22 August 2022

*Corresponding Author

E-mail: sonjy@dju.kr

a high demand for individual learning support through preparatory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it was necessary to secure enough learning aids and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to be used appropriately when needed. In addition,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educational support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were requested, and there were demands for development of care program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abled and assignment of dedicated personnel.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is study suggested implication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to bridge the learning gap and provide educational support due to distance learning.

Key Words: Parent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Distance Education, Educational Support, Survey

I. 서론

온라인 교육이나 원격수업은 전통적인 학습 공간 및 정해진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원격수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거나 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누군가의 도움이나 지원없이 자발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학업 뿐만 아니라 학업 이외의 활동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들은 기존의 대면수업 이외의 다른 형태의 수업(예: 원격수업 등)을 비자발적으로 경험하게 되었고 교육현장은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지속된 상황에서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격차와 기초학력 저하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장애 특성으로 인해 원격수업의 참여와 학습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장애학생들의 교육격차는 점차 늘어나게 될 것이다. 실제로 테크놀로지의 활용 정도에 따라 개인의 교육 기회는 확대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다[1]. 또한 온라인을 통하여 진행되는 교육환경 속에서 장애학생이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격수업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가정 내 지원 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에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 설문조사에 따르면 원격수업 및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가정에서의 교육 책임과 돌봄의 부담이 학부모에게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이와 더불어 원격수업으로 인하여 장애학생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활동적인 사회활동 및 참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따라 기존의 일상생활이나 규칙적인 일과가 깨어지고 비대면 상황에서의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3].

이와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원격수업이 지속됨에 따라 2020년부터 국내에서는 원격수업 및 온라인 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실시되었다. 이러

한 연구들은 장애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원격수업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거나 원격수업에 관한 경험을 묻는 면담을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김대용과 최진혁(2020)의 연구에서는 특수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실태와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4], 임갑필과 황혜정(2021)의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특수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 및 지원요구에 대해 조사하였다[5]. 또한 차현진과 구정아(2022)의 연구에서는 특수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원격지원을 위한 실태 및 요구를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6]. 김서현, 박은혜, 이영선(2021)은 지체중복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7], 한경임과 권상희(2021)는 특수학급 장애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원격수업의 경험을 면담하였다[8]. 실제로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경험한 원격수업의 유형과 실태, 원격수업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과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높이고 보다 양질의 원격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한 개선점 등이 논의되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특정 장애 영역에 한정하거나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면담을 하는 연구가 많았으며, 설문조사의 연구 또한 그 내용이 원격수업이라는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원격수업으로 인하여 교육취약계층의 학습의 질 저하 및 교육격차 우려가 증대되고[9], 장애학생 가족의 돌봄과 책임이 커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부족한 편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장애학생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활동적인 사회활동 및 참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따라 기존의 일상생활이나 규칙적인 일과가 깨어지고 비대면 상황에서의 관계 형성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경향이 증가하게 되었다. 실제로 교육방식이 원격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학생들은 상호작용의 결여, 우울감 증가 등을 경험하기도 하였다[3]. 이에 다양한 장애유형 및 학교급을 포함한 학부모가 겪은 원격수업 경험을 토대로 학부모가 인식하는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및 학습 이외의 구체적인 교육지원 방안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장애학생 학부모가 원격교육 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학습지원은 무엇인가? 둘째, 장애학생 학부모가 원격교육 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행동 및 심리지원은 무엇인가? 셋째, 장애학생 학부모가 원격교육 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돌봄 지원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A.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학령기 장애 자녀가 있는 전국의 학부모 총 2,392명이 참여하였다. 자녀가 소속된 학교급을 살펴보면,

표 1. 연구참여자의 기본사항

Table 1. Basic information of participants

구분	내용	응답자수 (명)	백분율 (%)
자녀의 성별	남	1,613	67.4
	여	779	32.6
자녀의 학교급	유치원	190	7.9
	초등학교	1,173	49.1
	중학교	520	21.7
	고등학교	366	15.3
	전공과	143	6.0
자녀의 교육형태	특수학교	693	29.0
	일반학교 특수학급	1,429	59.7
	일반학교 일반학급	270	11.3
자녀의 장애유형	시각장애	53	2.2
	청각장애	67	2.8
	지체장애	165	6.9
	지적장애	1,143	47.8
	자폐성장애	566	23.7
	중복장애	105	4.4
	기타	293	12.3
맞벌이 여부	맞벌이	930	38.9
	맞벌이 아님	1,462	61.1
거주 지역	서울	170	7.1
	인천/경기	670	28.0
	대전/충청/세종	222	9.3
	대구/경북	391	16.4
	부산/울산/경남	496	20.7
	광주/전라	297	12.4
	강원	88	3.7
	제주	58	2.4

초등학교(49.1%)가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21.7%), 고등학교(15.3%), 전공과(6.0%), 유치원(7.9%)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교육형태를 살펴보면 특수학급(59.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수학교(29.0%), 일반학급(11.3%)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장애유형으로는 지적장애(47.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폐성장애(23.7%)가 그 뒤를 이었다. 연구참여자의 구체적인 기본 인적사항은 표 1과 같다.

B.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장애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원격수업 및 교육지원의 인식 및 요구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설문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2020년 교육부에서 학부모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학생 원격수업 및 긴급돌봄에 대한 설문조사 문항을 검토하였고[10], 국가인권위원회(2020) 및 김대용과 최진혁의 연구(2020)에서 특수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원격수업 및 돌봄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분석하여[2,4], 이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게 설문조사 문항 초안을 개발하였다. 이후 특수교육 전공 교수 1인, 특수학교(급) 교사 2인, 장애학생 학부모 2인이 내용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이 포함된 문항들을 수정하였고, 모호한 의미를 지니는 표현은 구체적이고 간결한 표현으로 명료화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문항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은 크게 교육격차 방지를 위한 학습지원, 행동 및 심리적 어려움을 위한 지원, 교육복지 보장을 위한 돌봄지원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학습지원 영역의 경우, 교육격차 방지를 위한 학습지원의 중요도, 특수교육지원

표 2. 설문 문항의 구성

Table 2. Composition of the questionnaire for the survey

영역	내용	문항 수	응답 방식
학습지원	교육격차 방지를 위한 학습지원 중요도	5	Likert척도 (5점)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한 지원	1	선택형
	예비교사를 활용한 지원	2	선택형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1	선택형
행동 및 심리지원	행동 및 심리적 어려움과 지원방안	2	선택형
돌봄 지원	긴급돌봄 서비스 운영 및 개선점	3	선택형
교육지원에 관한 의견	지원 요구 및 개선의견	1	개방형
	계	15	

센터와 연계한 학습지원, 예비교사를 활용한 학습지원, 학습 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 교육격차 방지를 위한 학습지원의 중요도는 5점 Likert척도를 활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영역은 선택형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 장애학생 원격수업 및 교육지원에 대한 의견을 묻는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의 구성은 표 2와 같다.

C. 설문조사 및 자료분석

설문조사는 2021년 3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되었으며, 국립특수교육원 설문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실시되었다. 전국 교육청을 통하여 설문조사의 취지와 목적, 응답 방법 등을 안내하였고, 이를 통하여 학부모들이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취합된 자료는 SPSS 23.0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Likert 척도를 활용한 문항 및 선택형 문항은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중복응답을 한 문항은 다중 응답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무엇보다 자녀의 특수교육 형태에 따라 제공되는 원격교육 및 교육지원의 형태와 방식이 차이가 날 수 있고, 그에 따른 요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일반학급으로 구분하여 연구에 참여한 학부모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A. 교육격차 방지를 위한 학습지원

1) 교육격차 방지를 위한 학습지원의 중요도

원격수업 시 장애학생의 교육격차 방지를 위해 지원해야

할 학습지원의 중요도를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표 3 참조).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학부모 집단 모두 중요도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학교 내 대면교육(4.53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한 지원(4.30점)’, ‘교육청 연계 예비특수교사를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4.18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3.93점)’, ‘가정방문을 통한 대면교육(3.26점)’ 순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 모두 원격수업 시 장애학생 교육격차 방지를 위해 대면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대면교육의 방식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대면교육 보다는 학교 내 1:1 혹은 1:2 등의 소집단 대면교육의 중요도가 더 높다고 인식하였다.

2)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한 학습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한 학습지원 중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하여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학부모 집단 모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지원으로 ‘장애특성에 맞는 원격학습 방법 및 전략에 대한 상담’이었으며, ‘순회교육을 통한 대면교육 강화’, ‘장애학생 대상 디지털 활용능력 교육’ 순이 그 뒤를 이었다(표 4 참조). 다음으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학부모 집단에서는 ‘원격수업으로 인한 장애학생 행동문제에 대한 지원’, ‘장애학생 및 학부모 대상 심리상담 및 지원’, ‘원격수업을 위한 최신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정보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학급 학부모 집단의 경우, ‘장애학생 및 학부모 대상 심리상담 및 지원’, ‘원격수업으로 인한 장애학생 행동문제에 대한 지원’, ‘원격수업을 위한 최신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정보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대상 원격수업 관련 교육’과 관련해서는 세 집단 모두 전반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대체자료(예: 점자, 자막) 제작 지원 및 관련 서비스(예: 수어/문자통역) 제공을 위한 기관 연계’와

표 3. 장애학생 원격수업에서 교육격차 방지를 위한 학습지원의 중요도(5점 척도)

Table 3. Importance of learning support to prevent educational gap in distance learning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5-point Likert scale)

내용	집단별 인식 정도						학부모 전체평균 (n=2,392)
	특수학교 (n=693)		특수학급 (n=1,429)		일반학급 (n=270)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학교 내 소그룹 대면교육	4.56	.774	4.54	.789	4.38	.874	4.53
2 가정방문을 통한 대면교육	3.27	1.189	3.28	1.201	3.16	1.229	3.26
3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4.08	.966	3.90	1.056	3.70	1.096	3.93
4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한 지원	4.28	.858	4.34	.859	4.14	.967	4.30
5 교육청 연계 예비특수교사를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4.12	.949	4.24	.888	4.00	1.060	4.18
평균	4.06	.659	4.06	.690	3.88	.764	4.04

표 4.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가 필요한 학습지원(중복응답)

Table 4. Learning support necessary in connection with the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multiple responses)

내용	집단별 인식 정도								
	특수학교 (n=693)			특수학급 (n=1,429)			일반학급 (n=270)		
	빈도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빈도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빈도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1 순회교육을 통한 대면교육 강화	225	15.1	32.5	619	20.1	43.3	95	19.0	35.2
2 원격수업으로 인한 장애학생 행동 문제에 대한 지원	213	14.3	30.7	398	12.9	27.9	56	11.2	20.7
3 장애학생 및 학부모 대상 심리상담 및 지원	188	12.7	27.1	358	11.6	25.1	60	12.0	22.2
4 장애특성에 맞는 원격학습 방법 및 전략에 대한 상담	363	24.4	52.4	788	25.6	55.1	130	25.9	48.1
5 대체자료(예:점자,자막) 제작 지원 및 관련 서비스(예: 수어/문자통역) 제공을 위한 기관 연계	75	5.0	10.8	75	2.4	5.2	14	2.8	5.2
6 원격수업을위한최신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정보제공	115	7.7	16.6	191	6.2	13.4	48	9.6	17.8
7 장애학생 대상 디지털 활용능력 교육	223	15.0	32.2	508	16.5	35.5	77	15.4	28.5
8 학부모 대상 원격수업 관련 교육	64	4.3	9.2	124	4.0	8.7	17	3.4	6.3
9 기타	20	1.3	2.9	17	0.6	1.2	4	0.8	1.5
합계	1,486	100	214.4	3,078	100	215.4	501	100.0	185.6

관련한 요구는 특수학교 학부모에 비해 특수학급과 일반학급 학부모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3) 예비특수교사를 활용한 학습지원

장애학생 원격수업을 위한 학습지원의 방안으로 예비특수교사(특수교육과 재학생)를 활용하는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학부모의 78.6%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특수학교 학부모의 76.6%, 특수학급 학부모의 80.8%, 일반학급 학부모의 71.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예비특수교사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

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비특수교사가 어떠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 물었을 때, 세 집단 모두 ‘학습문제에 대한 지원 및 개별학습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원격수업 진행 시 수업 보조’가 그 뒤를 이었다(표 5 참조). 다음으로는 특수학교 학부모들은 ‘생활 속에서의 심리, 정서적 상담 및 지원’, ‘장애학생 대상 디지털 활용능력 지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특수학급 학부모의 경우에도 ‘장애학생 대상 디지털 활용능력 지도’와 ‘생활 속에서의 심리, 정서적 상담 및 지원’이 높게 나타났고, 일반학급 학부모들도 ‘생활 속에서의 심리, 정서적 상담 및 지원’, ‘장애학생 대상 디지털 활

표 5. 장애학생 원격수업을 위해 예비특수교사가 제공해야 할 지원(중복응답)

Table 5. Support to be provided by preparatory special education teachers for distance learning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multiple response)

내용	집단별 인식 정도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빈도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빈도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빈도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1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지원	88	8.6	16.4	162	6.7	13.9	22	5.6	10.9
2 원격수업 진행 시 수업 보조	266	25.9	49.7	617	25.5	52.8	100	25.6	49.5
3 원격수업에서 학생 출결 및 학습관리 지원	75	7.3	14.0	238	9.8	20.4	38	9.7	18.8
4 학습문제에 대한 지원 및 개별학습지도	295	28.7	55.1	761	31.4	65.1	137	35.1	67.8
5 장애학생 대상 디지털 활용 능력 지도	149	14.5	27.9	323	13.3	27.6	41	10.5	20.3
6 생활 속에서의 심리, 정서적 상담 및 지원	150	14.6	28.0	316	13.0	27.0	52	13.3	25.7
7 기타	5	0.5	0.9	7	0.3	0.6	0	0	0
합계	1,028	100	192.1	2,424	100	207.4	390	100	193.1

용능력 지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4)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원격수업을 위한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과 관련하여 학부모 세 집단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았다. 학부모 세 집단 모두 동일하게 '필요시 적시에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보조공학기기의 확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수학교 학부모의 경우, 그 다음으로 '장애학생 원격수업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상담', '보조공학기기 대여절차 간소화 및 대여 기간 확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수학급 학부모의 경우, 그 다음으로 '장애학생 원격수업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상담', '원격수업을 위한 기자재 및 보조공학기기

에 대한 정보 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학급 학부모의 경우, 다음으로 '보조공학기기 대여절차 간소화 및 대여 기간 확대', '최신의 다양한 유형의 보조공학기기 보유'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B. 행동 및 심리적 어려움을 위한 지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장애학생이 겪는 행동 및 심리적 어려움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관련하여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학부모 집단의 인식은 표 7과 같았다. 세 집단 모두 동일하게 필요한 지원으로 '장애학생의 심리상담 및 교육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장애학생의 행동문제의 기능 분석 및 중재 프로그램 제공'이 뒤를 이었으며,

표 6.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시 개선해야 할 점(중복응답)

Table 6. Request for improvement when supporting learning aids and assistive technology devices (multiple response)

내용	집단별 인식 정도								
	특수학교 (n=693)			특수학급 (n=1,429)			일반학급 (n=270)		
	빈도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빈도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빈도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1 최신의 다양한 유형의 보조공학기기 보유	182	16.0	26.3	351	15.5	24.6	68	16.6	25.4
2 필요시 적시에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보조공학기기의 확보	358	31.6	51.7	733	32.3	51.3	139	34.0	51.9
3 보조공학기기 대여절차 간소화 및 대여 기간 확대	195	17.2	28.2	361	15.9	25.3	88	21.5	32.8
4 원격수업을 위한 기자재 및 보조공학기기 정보 제공	177	15.6	25.6	391	17.2	27.4	56	13.7	20.9
5 장애학생 원격수업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 상담	202	17.8	29.2	395	17.4	27.7	54	13.2	20.1
6 기타	20	1.8	2.9	40	1.8	2.8	4	1.0	1.5
합계	1,134	100	163.9	2,271	100	159	409	100	152.6

표 7. 장애학생이 겪는 행동 및 심리적 어려움을 위한 지원(중복응답)

Table 7. Support for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difficulties experienced by students with disabilities (multiple response)

내용	집단별 인식 정도								
	특수학교 (n=693)			특수학급 (n=1,429)			일반학급 (n=270)		
	빈도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빈도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빈도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1 장애학생의 행동문제의 기능 분석 및 중재 프로그램 제공	359	29.5	51.9	769	30.8	53.9	104	25.6	38.8
2 장애학생의 심리 상담 및 교육지원	365	30.0	52.7	853	34.2	59.7	168	41.4	62.7
3 학부모와 가족의 심리상담 및 지원 (예: 마음건강회복프로그램등)	216	17.8	31.2	407	16.3	28.5	68	16.7	25.4
4 장애학생의 행동 및 심리 특성과 관련된 학부모 연수 제공	146	12.0	21.1	242	9.7	16.9	39	9.6	14.6
5 행동문제에 대한 의료적 상담 및 중재(예: 약물치료등)	108	8.9	15.6	194	7.8	13.6	14	3.4	5.2
6 기타	22	1.8	3.2	31	1.2	2.2	13	3.2	4.9
합계	1,216	100	175.7	2,496	100	174.8	406	100	151.5

표 8. 장애학생의 효과적인 행동중재 지원

Table 8. Effective behavioral intervention support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내용	집단별 인식 정도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	거점병원 내 행동중재지원센터와 연계한 지원	78	11.3	147	10.3	30	11.2
2	학교가 중심이 된 중재지원 및 외부전문가(예: 행동치료사 등)의 컨설팅 제공	357	51.7	721	50.5	109	40.7
3	학교가 지역사회기관(예: 행동클리닉 등)에 의뢰 하여 중재지원	93	13.5	265	18.6	50	18.7
4	가정 내 연계를 통한 중재지원(예: 교사 및 치료사의 가정방문 지원 등)	116	16.8	220	15.4	43	16.0
5	의료진 협력 및 자문 제공	37	5.4	57	4.0	28	10.4
6	기타	9	1.3	18	1.3	8	3.0
	합계	690	100	1,428	100	268	100

‘학부모와 가족의 심리상담 및 지원’, ‘장애학생의 행동 및 심리 특성과 관련된 학부모 연수 제공’, ‘행동문제에 대한 의료적 상담 및 중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학생의 행동중재 관련하여 가장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묻는 질문에서 세 집단 모두 동일하게 ‘학교가 중심이 된 중재지원 및 외부전문가(예: 행동치료사 등)의 컨설팅 제공’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표 8 참조). 특수학교 학부모의 경우, 그 다음으로는 ‘가정 내 연계를 통한 중재지원’, ‘학교가 지역사회기관에 의뢰하여 중재지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학부모의 경우, 그 다음으로는

‘학교가 지역사회기관에 의뢰하여 중재지원’, ‘가정 내 연계를 통한 중재지원’, ‘거점병원 내 행동중재지원센터와 연계한 지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C. 교육복지 보장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보장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묻는 질문에 세 집단 모두 동일하게 ‘장애특성에 적합한 돌봄 프로그램 개발’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학생 돌봄 전담 및 전문인력 추가 배치’

표 9. 긴급돌봄 서비스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점(중복응답)

Table 9. Request for improvement in urgent care service (multiple response)

내용	집단별 인식 정도									
	특수학교 (n=693)			특수학급 (n=1,429)			일반학급 (n=270)			
	빈도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빈도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빈도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1	돌봄 이용시간의 확대	245	13.5	35.6	383	10.6	26.8	51	9.2	19.0
2	장애학생 돌봄 전담 및 전문인력 추가 배치	340	18.8	49.4	783	21.6	54.9	119	21.4	44.4
3	장애특성에 적합한 돌봄 프로그램 개발	377	20.8	54.8	844	23.3	59.1	129	23.2	48.1
4	등하교 서비스를 통한 장애학생의 접근성 보장	157	8.7	22.8	283	7.8	19.8	46	8.3	17.2
5	지역사회유관기관(예: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한 돌봄 확충	167	9.2	24.3	314	8.7	22.0	42	7.5	15.7
6	기존의 장애관련 서비스(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등)와 연계한 돌봄 확충	213	11.8	31.0	419	11.6	29.4	71	12.7	26.5
7	돌봄교실의 방역 강화 및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전담인력 추가 지원	147	8.1	21.4	261	7.2	18.3	38	6.8	14.2
8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자격 및 기준의 확대	164	9.1	23.8	316	8.7	22.1	51	9.2	19.0
9	기타	-	-	-	22	0.6	1.5	10	1.8	3.7
	합계	1,810	100	263.1	3,625	100	254.0	557	100	207.8

표 10. 긴급돌봄 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 방법(중복응답)

Table 10. The effective operation method of the urgent care service (multiple response)

내용	집단별 인식 정도								
	특수학교 (n=693)			특수학급 (n=1,429)			일반학급 (n=270)		
	빈도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빈도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빈도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1 학교의 긴급돌봄교실 이용	301	20.0	43.7	526	17.6	36.9	82	17.2	30.6
2 학교의 방과후교실 활동과 연계	312	20.7	45.3	578	19.4	40.5	97	20.3	36.2
3 지역사회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연계 (예: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바우처)	193	12.8	28.0	530	17.7	37.2	80	16.8	29.9
4 청소년 방과후활동 서비스와 연계	78	5.2	11.3	197	6.6	13.8	33	6.9	12.3
5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연계	210	13.9	30.5	427	14.3	29.9	68	14.3	25.4
6 장애아양육지원사업 돌봄서비스와 연계	142	9.4	20.6	268	9.0	18.8	43	9.0	16.0
7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과 연계	88	5.8	12.8	158	5.3	11.1	28	5.9	10.4
8 지역사회장애관련기관(예: 장애인 복지관, 장애 인가족지원센터 등) 프로그램과 연계	182	12.1	26.4	303	10.1	21.2	46	9.6	17.2
합계	1,506	100	218.6	2,987	100	209.5	477	100	178.0

가 그 뒤를 이었다(표 9 참조). 특수학교 학부모의 경우, 그 다음으로는 ‘돌봄 이용시간의 확대’, ‘기존의 장애관련 서비스와 연계한 돌봄 확충’, ‘지역사회유관기관과 연계한 돌봄 확충’ 순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급 학부모의 경우에는 ‘기존의 장애관련 서비스와 연계한 돌봄 확충’, ‘돌봄 이용시간의 확대’, ‘지역사회유관기관과 연계한 돌봄 확충’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학급 학부모의 경우, ‘기존의 장애관련 서비스와 연계한 돌봄 확충’, ‘돌봄 이용시간의 확대’,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및 기준의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긴급돌봄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할지를 묻는 질문에 세 집단 모두 동일하게 ‘학교의 방과후교실 활동과 연계’하는 방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10 참조). 그 다음으로는 특수학교 학부모의 경우, ‘학교의 긴급돌봄교실 이용’,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 순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급 학부모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 ‘학교의 긴급돌봄교실 이용’,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연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학급 학부모의 경우, ‘학교의 긴급돌봄교실 이용’, ‘지역사회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연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일반학교에 소속된 장애학생의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방식에 관해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물었을 때(표 11 참조), 두 집단 모두 각각 49.4%와 50.0%

표 11. 일반학교에 소속된 장애학생의 긴급돌봄 서비스의 운영 방식

Table 11. Method of operating urgent care service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general schools

내용	집단별 인식 정도			
	특수학급 학부모 (n=1,355)		일반학급 학부모 (n=264)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 지역 내 거점 일반학교를 지정하고 추가 전담인력 배치하여 돌봄교실 참여 지원	152	11.2	28	10.6
2 일반학교 내 추가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돌봄교실 참여 지원	670	49.4	132	50.0
3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추가 전담인력 배치하여 돌봄교실 운영	249	18.4	29	11.0
4 지역사회유관기관(예: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돌봄교실 운영	83	6.1	16	6.1
5 기존의 장애관련서비스(예: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등)와 연계	183	13.5	49	18.6
6 기타	19	1.4	10	3.8
합계	1,355	100	264	100

로 ‘일반학교 내 추가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돌봄교실 참여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높게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특수학급 학부모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추가 전담인력 배치하여 돌봄교실 운영’, ‘기존의 장애관련 서비스와 연계’, ‘지역 내 거점 일반학교를 지정하고 추가 전담인력 배치하여 돌봄교실 참여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학급 학부모의 경우에는 ‘기존의 장애관련 서비스와 연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추가 전담인력 배치하여 돌봄교실 운영’, ‘지역 내 거점 일반학교를 지정하고 추가 전담인력 배치하여 돌봄교실 참여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장애학생의 원격수업 참여 경험을 토대로 장애학생의 학부모가 인식한 원격수업 및 교육지원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에 따른 연구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격수업 시 장애학생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맞춤형 학습지원체계가 요구된다. 학부모 집단 모두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대면교육에 관한 지원 요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대면교육의 방식으로는 가정방문을 통한 대면교육 보다는 학교 내 일대일 혹은 소그룹 대면교육의 중요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장애학생의 특성에 맞는 원격학습 방법이나 전략에 대한 상담이 제공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순회교육을 통한 대면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 및 활동과 관련하여 장애학생의 학습참여를 높이고 학습이해도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학생의 필요에 따라 대면 개별 지도 및 소규모 지도가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 수업 등으로 인한 장애학생의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이나 멘토링 등 다양한 학습지원 체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특수교육 관련 전공자 등 예비특수교사 활용하여 장애학생의 개별적인 학습 지도 및 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안이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원격수업 시 장애학생의 특성에 맞는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들을 필요한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기가 확보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둘째, 장애학생이 원격수업에 원활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연계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요구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맞벌이 등의 이유로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을 현실적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으며[4], 장애학생이 효과적으로 원격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항들을 지원해주는 촉진자가 필요하다고 언급되었다[11]. 이에 가정에서 장애학생이 원격수업을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의 가정방문 지원이나 교육청 단위에서 운영하는 원격학습을 위한 민원, 상담 서비스 뿐만 아니라 [12], 학부모를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밖에 이러한 지원체계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수교육보조인력 제도, 보건복지부 바우처 제도, 대학생 교육봉사 제도와 연계도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나[13],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아닌 활동보조 인력이 원격수업을 지원할 때 우려되는 전문성 불일치로 인한 문제[7]에 대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원격수업 시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보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시 된다. 실제로 맞벌이 가정 등으로 인해 장애학생의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의 방과후교실이나 학교의 긴급돌봄교실과 같이 학교를 통한 운영 방안이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장애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적인 전담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필요로 하며, 돌봄 이용시간이나 긴급돌봄 신청 자격의 확대, 등하교서비스 등과 같이 돌봄에 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대해서도 요구하였다. 연구결과 세 집단 학부모 모두 장애특성에 적합한 돌봄 프로그램 개발이 가장 필요하다고 요구하였으며, 특수학교에 비해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의 경우, 학교 내 긴급돌봄서비스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어 일반학교 내 추가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돌봄교실 참여를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높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애학생이 통합된 환경에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돌봄교실이나 방과후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시에는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인력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원격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 내 거점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활용한 방과후활동지원, 방학 중 활동프로그램 운영, 예비 특수교사 및 대학생을 활용한 일대일 멘토링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장애학생 교육지원 제공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장애학생이 실제로 그러한 지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안내, 통학이나 이동 등의 문제들에 대한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장애학생이 겪는 행동 및 심리적 어려움을 위한 지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실제

로 학부모들은 가족의 심리상담이나 지원보다는 장애학생의 심리상담이나 문제행동 중재와 같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학습 및 원격학습이 장기화되고 또래나 교사 등과의 직접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 감소함에 따라 장애학생의 부적응 행동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우려를 종종 듣게 된다. 이에 따라 원격수업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차원의 행동지원 체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4]. 장애학생을 위한 행동중재를 지원할 때 학생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가 중심이 되어 학교 내 교사가 학생에 대한 중재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면서 외부의 행동중재 전문가가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전문가가 협력과 자문을 구하는 형태, 혹은 이와 반대로 외부 전문가가 학교 교사나 전문가와의 협력과 자문을 받으면서 학생의 중재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행동중재에 관한 지원 내용과 다양한 행동중재 사례를 학교와 가정이 공유함으로써, 학교와 가정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교육방식 원격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학생들은 상호작용의 결여, 우울감 등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3], 이로 인하여 장애학생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학부모들의 어려움은 더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기관의 확대 및 전문상담 인력의 확충이 요구된다.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상담기관(예: Wee 센터 등)에 상담 실무 능력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거나 확충하여 장애학생의 심리상담 및 정서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 장애학생 돌봄 및 지원을 담당하는 가족 구성원에게도 필요시 적절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지역사회 관련기관이 함께 연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학생의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보장을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협력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시 된다. 장애학생이 원격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원격수업을 위한 환경 조성, 원격수업에 필요한 인프라 제공, 장애학생의 돌봄 및 행동중재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와 가정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필요한 물질, 인적자원을 공유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학생이 겪은 원격수업의 경험과 교육지원에 대한 요구들을 학부모의 시선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원격수업은

기존의 대면수업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방법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러한 원격수업 시 장애학생에게 요구되는 학습지원 및 교육지원의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사회변화 및 교육환경 변화에 발맞춰 이에 관한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21년 국립특수교육원 정책연구로 수행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체제' 연구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참고문헌

- [1] T. Kim, "Future education directions and tasks in the new normal era," Seoul: Hansun Foundation, 2020.
- [2]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Report the results of a survey on the live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in the context of COVID-19," Seoul: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2020.
- [3] E. Lee, "The mental health of Corona 19 generation," *Issue & Analysis*, no. 414, pp. 1-25, May 2020.
- [4] D. Kim and J. Choi,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perception of special education online learning due to COVID-19,"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 55, no. 2, pp. 85-108, 2020.
- [5] G. Lim and H. Hwang, "Exploring parents support requests for distance learning in special schoo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1, no. 19, pp. 401-418, 2021.
- [6] H. Cha and J. Ku, "Analysis of teachers' and parents' needs for distance education support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the post-Corona era,"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2, no. 5, pp. 857-877, 2022.
- [7] S. Kim, E. Park, and Y. Lee, "Exploring mothers' difficulties and support needs in online learning for students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during pandemic situation," *The Education Journal for Physical and Multiple Disabilities*, vol. 64, no. 4, pp. 45-65, 2021.

- [8] K. Han and S. Kwon,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on-line based classes experience of parents with disabled students in the special classroom in COVID-19 Situation,"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vol. 23, no. 3, pp. 1-30, 2021.
- [9]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Measures to ensure basic academic ability and reduce the educational gap in distance education situations," Chungbuk: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20.
- [10] Ministry of Education, "Reporting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distance learning and urgent care for students eligible for special education in the second semester,"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2020.
- [11]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Education policies and implications of major countries in response to COVID-19," Chungbuk: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20.
- [12] H. Chang, "Prospects for distance learning in the post-corona era," *Future Horizon*, vol. 47, pp. 36-41, 2020.
- [13] H. Lee, C. Park, and N. Lee, "Online class experience of elementary special teachers working at special schools for intellectual disabilit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case study,"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 26, no. 5, pp. 589-612, 2020.



구 정 아 (Jeong-Ah Ku)_정회원

201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박사
2018년 3월 ~ 현재 : 대전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중등특수교육, 진로 및 전환교육, 통합교육



손 지 영 (Ji-Young Son)_정회원

2008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전공 박사
2014년 3월 ~ 현재 : 대전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학습장애, 특수교육공학, 장애학생 스마트교육